

과수 착과 안정 기술지원... 저온 피해 총력

농진청, 상습 저온 피해 시군·농가 집중 점검

농촌진흥청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의 저온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열매 달림(착과)을 위해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저온 피해 수준별 생육 관리 요령을 제공하는 등 현장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과수 저온 피해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저온 피해가 발생한 66개 시군 401개 농가의 과종별 개화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저온 예방 기술 및 인공수분 요령 등을 농가에 전파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4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이상 저온과 이달 12~13일 이어진



강설 및 강풍으로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사과도 생육 관리에 힘쓰면 과수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적정 착과량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배 꽃은 피해율이 50% 이하이면 수확량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평소처럼 열매를 수확, 비료를 공급하면서

나무 생육과 결실을 관리하면 된다. 피해율이 50~80%인 경우에는 피해를 안 받은 꽃눈이 적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착과량을 조절한다.

인공수분 횟수를 1~2회 추가하거나 영양제를 살포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면 수확량을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다 꽃이 늦게 피는 사과의 저온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개화 후 지역에 따라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같은 기상 이변이 있을 수 있어, 중앙에 핀 꽃(중심화)과 옆에 핀 꽃까지 인공수분을 실시한다.

과수농가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거나 서리 우박 등에 대비해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

시설을 미리 살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상 재해 조기 경보서비스' 가입 농가에 저온 발생 대처 요령 등을 메시지(알림톡)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달 28~31일 사이에 알림을 받은 경북 김천의 배 재배 농가는 미세살수 장치를 적기에 가동한 덕분에 피해율이 10% 수준에 그쳤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경북 상주, 전남 나주 등 배 주산지에서 꽃눈이 겹게 변하는 저온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공수분을 통한 착과 관리, 열매 숙는 시기 조절 등 생육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과수 재배 지역의 저온 피해 수준에 따라 생육 관리 및 기술지원을 실시, 과수 안정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ChatGPT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

현장 맞춤형 AI 마케팅 교육 큰 성과

바이오진흥원, 'ChatGPT 활용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7일 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실무 교육인 'ChatGPT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 지역의 전통식품 제조·유통 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로 가득 찼으며, AI 기술을 실질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전통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ChatGPT 기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고객 응대 자동화 △SNS 채널별 맞춤 마케팅 전략 △브랜드 스토리텔링 도구로서의 AI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전통식품 기업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교육 참가자들은 단순 이론을 넘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제작해보며 직접 AI 도구의 가능성을 체험했고, 일부 기업은 자사 제품 홍보 문안을 ChatGPT를 통해 제작해보는 등의 실습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식품 분야 창업기업 20개사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협약체결 및 Kick-off 회의를 지난 17일 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투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20개사를 선정하여 4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협약 종료일까지 도내로 본사 사업장, 연구소 등을 이전·설치할 계획이 있는 업력 7년 미만의 식품 분야 창업기업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투자유치형'과 '배출증대형'이라는 성장유형 분류체계를 도입했으며, 기업진단 멘토링을 통해 각 기업에 적합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유치형으로 분류된 기업은 R자료를 제작, 고도화 컨설팅, 제작 지원, TFS 연계를 위한 전문가 매칭을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 나섰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 Gas South Convention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대회로 당초 '제1회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로 추진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격상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



자 등 약 1만 5000명, 300여 개 기관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행사이며, 이번 대회에서 기업 전시회, VC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비즈니스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전주에

서 개최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 미국 애틀랜타에서 글로벌 한인 경제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장 등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이번 대회의 공동 주최기관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공동 주관기관인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산불 피해 인삼밭 복구에 힘 보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직원, 경북 청송 인삼 농가 찾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직원 25명은 지난 17일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 지역 인삼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와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은 인삼협회, 경북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풍기인삼농협 등과 피해 농가의 아픔을 나누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삼 주요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경북 청송은 지난날 산불로 인삼 재배

농가 40곳, 15헥타르(ha) 면적에서 크고 작은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인삼특작부 직원들은 청송 인삼 농가 3곳을 방문해 불에 탄 인삼 지주목과 차광망을 철거하고, 밭에 호트라인 잔존물을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전문 연구진을 중심으로 △농가별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 후 병해충 예방과 관리 방안 △저온 피해 예방 요령 등 기술 지원을 진행했다.



산불 피해를 본 인삼밭에는 조기에 해가림을 설치해 썩어 나가기(출아) 시작한 인삼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이미 썩은 인삼은 줄기 점무늬병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약제로 방제한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국산 열풍건조 생산·유통 민관 협업 강화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인면 열풍건조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국산 열풍건조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립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마사회, 농협경제지주, 익산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풀사료 생산 경영체 등 정책기관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열풍건조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열풍건조 생산시스템 운영 현황과 생산 기반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열풍건조가 고품질·저비용 국산 풀사료로써 수입 건초를 대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장비 보급과 유통 기반 확대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오상근기자



풀사료 생산 경영체 관계자는 "현재는 열풍건조 생산시설이 소규모라 공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책과 연계해 생산 규모를 늘려 간다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나아가 더 많은 농가에 열풍건조를 지금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 '조사료 열풍건조 생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기를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와 협력해 공공승마장에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